

# 沈壽官家の 기억, 그 변화와 활용

## - 청송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정 영 구\*\*

### 국문초록

일본인 심수관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예가 중 한 명이다. 특히 4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한국 이념과 전통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도자기 명인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 심수관가가 민족정신이나 애국심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남원과 청송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여 학계에서도 심수관 가문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심수관의 행적 중 대부분이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심수관 가문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아마도 이를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진위여부를 판명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충분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이 논란에는 뛰어들지 않았다. 새롭게 밝혀진 결정적인 증거없이 단편적인 시각만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1910년대부터 출간된 신문자료를 통해 심수관 일가에 대한 기억들을 분석하고 그 기억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심수관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심수관가에 전승되어오던 기억이 일제강점기에는 내선일체의 논리로, 해방 이후에는 한국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의 내용으로 인해 기억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립 박물관에 기록된 서술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위험성을 제고했다.

[주제어] 심수관, 청송 심수관 도예전시관, 기억의 전환, 조선도공, 나에시로가와

### 목 차

I. 머리말	IV. 기억의 활용 : 내선일체의 증거인가?
II. 기억의 시작	애국심의 상징인가?
III. 기억의 변화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안동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an10040909@anu.ac.kr

## I. 머리말

청송의 주왕산 입구에 위치한 청송백자 도예촌은 관광객들에게 청송백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송백자 만들기 체험도 제공하고, 청송백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문화시설이다. 그런데 이 도예촌 한 편에 청송백자와 그다지 관계가 없는 건물이 하나 있다. 바로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이다. 이 전시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인 심수관은 청송 심씨의 후손이라고 하며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강제 연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뿌리를 잊지 않고 전통기술을 지키며 일본에서 살아가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그 집안의 도예품이 416년만에 본향인 청송으로 돌아왔다고 한다.<sup>1)</sup> 이러한 사연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심수관도예전시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심수관의 예술혼, 피로인의 고단함, 그럼에도 조국을 잊지 않은 애국심 등에 감명을 받았고, 그 흔적을 자신들의 블로그에 남겼다.<sup>2)</sup>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청송에서 심수관家的 도예품 전시관을 그것도 심수관과 관계가 깊지 않은 청송백자 도예촌에 거액을 들여 설치해 놓았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심수관의 뿌리가 청송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인 심수관(1835~1906)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 장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 예술성은 이미 많은 국제 박람회에서 인정받았고, 메이지 천황이 훈장을 내릴 정도로 일본에서도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수관의 손자인 14대 심수관(오사코 게이키치, 大迫惠吉, 1926~2019)은 1965년 방한이후 국내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알려지게 되었고<sup>3)</sup> 1968년에 발매된 일본의 유명작가인 시바료타로의 소설 속 주인공으로 묘사되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더욱 유명해졌으며 1989년 일본 가고시마현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가 되었다. 특히 일본으로 끌려간지 400년이 되었다는 1998년에 남원에서 불씨를 가져가는 퍼포먼스와 몇 차례의 강연,<sup>4)</sup> 특별 다큐멘터리,<sup>5)</sup> 우호적인 신문기사<sup>6)</sup> 등을 통해 애국심의 상징물처럼 알려졌다.<sup>7)</sup> 이러한

1) 본 전시관은 2013년에 58억 2000만원을 들여 청송백자 전시관과 함께 조성되었다고 한다.

청송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www.cctf.or.kr/business/business\\_4\\_2.php](http://www.cctf.or.kr/business/business_4_2.php) (검색일 : 2020.09.29.)

2) 청송여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송심수관도예전시관을 방문한 뒤 만든 많은 개인들의 블로그 리뷰를 볼 수 있다.

<http://www.cs.go.kr/tour/00004557/00004574.web?amode=view&idx=170&> (검색일 : 2020.09.29.)

3)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심수관이라고 하면 14대 심수관 즉 오사코 게이키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4) 대표적인 강연은 동아일보사와 일민미술관에서 개최한 「400년만의 귀향 - 일본속에 꽃피운 심수관家 도예전」을 기념하여 한 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한 것이다. 강연문은 『민족연구』 창간호에 게재되어 있다(심수관, 「한국혼을 지켜온 재일 400년 - 심수관가 400년제에 즈음하여 -」, 『민족연구』 1, 한국민족연구원, 1998).

5) 400년만의 귀향 조선도공 심수관, 본 다큐멘터리는 KBS에서 방영한 것인데 KBS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三谷十夏의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유튜브URL이 소개되어 있어 시청할 수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nU\\_G7MNI](https://www.youtube.com/watch?v=cxnU_G7MNI)(검색일 : 2020.10.01.) 이외에도 MBC 광복절특집 ‘고향을 잊기 어렵습니다’(2000.08.15.), MBC 광복절특집 ‘도공 심수관’(2000.08.15.), KBS 네트워크기획 ‘다시 부르는 아리랑(심수관)(1998.07.01.)’이 있다고 하는데(김진아, 「사스마야키의 내연과 외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필자가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다.

6) 동아일보의 사례만 보더라도 1998년 한 해 동안 심수관家에 관해 보도한 기사만 81편에 달한다(동아닷컴 기사 검색결과, 검색어 : 심수관([https://www.donga.com/news/search?p=76&query=%EC%8B%AC%EC%88%98%EA%B4%80&check\\_news=1&more=1&sorting=2&search\\_date=1&v1=&v2=&range=1](https://www.donga.com/news/search?p=76&query=%EC%8B%AC%EC%88%98%EA%B4%80&check_news=1&more=1&sorting=2&search_date=1&v1=&v2=&range=1)) 검색일 : 2020.10.01.)

7) 심수관家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일이다. 1985년 KBS에서는 시바료타로의 소설을 “고향을 어이 잊을까”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기획하여 3부작 특집드라마로 제작한 후 1986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KBS1 채널에서 방영하였다. 이듬해, 「일

유명세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수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이 오사코 게이키치(14대 심수관)의 주장에 근거한 심수관家の 행적에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작위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sup>8)</sup> 여전히 심수관家는 민족혼을 지켜온 불굴의 한국인으로서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심수관을 높게 평가하는 논지의 글이 전문학술논문으로서 전문학술잡지에 게재된 경우가 거의 없다.<sup>9)</sup>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심수관家에서 표방하는 소위 예술혼과 애국심에 대한 근거가 시바료타로의 소설 『故郷 忘じがたく候』와 심수관이라는 이름으로 쓴 오사코 게이키치의 몇 편의 글<sup>10)</sup> 혹은 인터뷰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람의 혹은 한 세대의 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될 수도 있고, 기억의 주체도 모르는 사이 그 사회에 맞는 형태로 치환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학 학술논문은 한 개인 혹은 특정세대의 기억에 대한 진위여부를 사료에 근거하여 밝히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수관家에 대한 논문은 이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연구 이외에 기억에 대한 변화자체를 검토하고 그 양상을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억되는 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심수관家の 가정사에 관한 문헌학적 고증이 아니다. 이미 적지 않은 선행연구에서 고증작업을 진행하였고, 사료의 부족으로 그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힘들다는 한계도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심수관家에 관한 역사적 고증, 혹은 진실공방보다 13대에서 14대를 거쳐 15대에 이르는 세월동안 변해가는 심수관家 사람들의 기억이 어떻게 바뀌고 심수관家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료에 기억된 심수관가의 기록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근대 신문자료를 이용해 13대 심수관이라고 불린 심정연(1889~1964)의 발언

본 문학에 재현된 조선계 도공의 고향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 - 시바료타로의 소설 「고향을 어이 잊으리까를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9, 103쪽에는 2부작이라고 언급하였지만, 그 당시 방영기록을 보면 3부작으로 확인된다. 경향신문 1986년 8월 13~15일 TV 채널편성표 참조.

- 8) 노성환, 「나에시로가와와 조선도공 마을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 35, 대한일어일문학회, 2007; 노성환, 「만들어진 도공의 신화」, 『일본언어문화』 12, 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정병설, 「조선 도공 후에 심수관의 허상과 실상」,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2014.
- 9) 논문형태의 글은 윤지인, 「조선도공 심수관의 히마카리 다완을 통해 본 420년의 맥」, 『한국예대학』 3, 원광대학교 한국예대학연구소, 2016이 있는데 근거자료가 거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표적인 글을 들면, 김승한, 『일본에 심은 한국(1)』, 중앙일보사, 1979; 신봉승, 「일본도자기의 전통을 세운 한국도공들」, 『한국인』, 1982; 신일철, 「남원에서 납치된 사쓰마야키의 도조들」, 『일본문화의 뿌리 한국』, 상서각, 1986; 송효빈, 「사쓰마야키 14대 심수관」, 『이것이 일본이다』, 한국일보사, 1985; 송형섭, 「도공 심수관(상)(하)」, 『일본 속의 백제문화』, 한겨레, 1988; 김충식, 「사백년의 약속, 심수관이 조국의 불을 품다」, 『슬픈 열도』, 효행, 2006; 정수용, 『일본역사를 바꾼 조선인』, 동아아시아, 1999 등이 있다(노성환, 「만들어진 도공의 신화」, 『일본언어문화』 12, 2008, 274쪽 주) 1~7 참조). 이밖에 나에시로가와(苗代川) 혹은 사쓰마(薩摩)에 정착한 조선도공들을 묘사하면서 심수관을 언급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글에서 심수관은 중심인물이 아니다.
- 10) 심수관, 「나와시로가와(苗代川)에 살며」, 『일본연구』 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990; 심수관, 「日本の中の韓國文化の紹介とこれからの日韓文化交流のありかた」, 『일본학보』 35,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1995; 심수관, 「한국혼을 지켜온 제일 400년 - 심수관이 400 년제에 즈음하여 -」, 『민족연구』 1, 한국민족연구원, 1998; 심수관(지) 양은용(역), 「한일 도자기 문화의 교류와 심수관」, 『한국종교』 26,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2.

을 살펴본 후 오사코 게이키치의 발언과 비교하여 심수관家の 역사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보인 심정언의 발언과 행보, 1965년 이후 오사코 게이키치의 발언과 행보를 비교,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대중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과 전시관을 통해 심수관家の 인식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기억의 시작

### 1. 사료에 기억되는 심수관家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수관家에 대한 문헌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태이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초대 심당길의 출신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피로인의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심수관家の 정착 과정을 어느 정도 추측할 뿐이다. 조선피로인의 나에시로가와 정착과정과 관련된 주요 1차 사료로는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 소장되어 있는 「苗代川由來記」, 「苗代川記」, 「朝鮮根本記 拔粹」, 「鹿島縣日置郡伊集院村苗代川ノ沿革概要」 등과 오오다케 스스무(大武進)가 발굴한 朴壽悅本家 「苗代川由來記」가 있다.<sup>11)</sup> 이 중 「苗代川由來記」는 도쿄대 소장본과 박수열 본가본이 거의 비슷한데 박수열 본가본이 조금 더 상세하기 때문에<sup>12)</sup> 본고에서는 朴壽悅本家 「苗代川由來記」를 인용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598년 12월에 조선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시마비라(嶋平), 칸노가와(神之川), 가고시마(鹿兒島) 등 3곳에 도착했다.

① 嶋平에는 朴, 林, 車, 朱, 盧, 李, 鄭, 姜, 何, 陳, 崔, 丁, 黃, 羅, 燕, 安, 張, 卞씨 등 18姓을 가진 남녀 43명이 도착했다. 이 중 黃, 羅, 燕씨는 1대로 단절되었고, 安, 張씨는 자기기술자로 류큐로 보내졌다.

② 神之川에는 申, 金, 盧 3성 10인이다. 立野에 거주하는 星山, 田原 2성도 칸노가와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③ 鹿兒島에는 20명이 도착했는데 성명을 알지 못한다.<sup>13)</sup>

11)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10~11쪽. 나에시로가와에 대한 사료에 대한 것은 이 논문과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5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12)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13~14쪽.

13) 大武進, 『薩摩苗代川新考』, 川内市, 村尾印刷, 1996, 157~158쪽.

위의 기록은 납치된 조선도공이 사쓰마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沈씨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료인 「先年朝鮮より被召渡留帳」을 살펴보면,<sup>14)</sup> 「苗代川由來記」와 거의 같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성환은 심씨가 원래 도공출신이 아니고 나중에 학습에 의해 도공이 되었다고 판단했다.<sup>15)</sup>

김정호는 「苗代川記」의 기록이 위의 두 사료와 비슷하지만 피로인의 성씨에 차이가 보인다고 했다. 「苗代川記」에는 何, 羅, 燕, 安씨 대신 金, 白, 沈, 申씨가 나열되어 있고 「鹿島縣日置郡伊集院村苗代川ノ沿革概要」에는 조선의 南原城, 加德島, 熊川, 金海에서 포로로 잡힌 도공이 모두 22姓 60여 명이라고 했다.<sup>16)</sup> 이 두 사료는 모두 1910년 이후에 작성된 사료이기 때문에 朴壽悅本家 「苗代川由來記」보다 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의 두 사료에서 언급한 나, 연, 안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의심을 증대시킨다. 아마도 나씨와 연씨는 1대로 대가 끊겼고, 안씨는 류큐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균은 「苗代川由來記」와 「先年朝鮮より被召渡留帳」에 심씨가 없는 것에 대해, 沈壽官家の 1대라고 알려진 沈當吉이 위의 세 지역에 도착한 인물이 아니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심당길을 왕가의 외척 무사출신으로 이금광(李金光)을 호위했는데 이금광이 귀환하자 홀로 남겨졌다고 주장했다.<sup>17)</sup> 朴壽悅本家 「苗代川由來記」를 보면 金光이라는 인물이 언급된다. 金光은 왕의 친족이라서 조선으로 쇠퇴되었다는 기록이<sup>18)</sup> 있기 때문에 김광을 이씨라고 간주해도 합부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금광이 송환할 때 피로인 100여 명을 함께 송환했다고 하는데 왕실의 외척인 호위무사를 두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sup>19)</sup> 朴壽悅本家 「苗代川由來記」에는 특별히 변씨 성을 가진 자를 언급하며 진주에 80석 영지를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만약 심당길이 왕가의 외척이었거나 조선 어느 지방의 유지였다면 김광(혹은 이금광)이나 변씨처럼 기록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료에는 진씨가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가하여 영주로부터 陳山休三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 심당길이 무반이었다면 진씨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쓰마로 납치된 조선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정유재란 이후에 벌어진 세키가하라 전쟁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자 이에 대적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그나마 시마즈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후퇴했기 때문에 사쓰마변이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조선인 피로인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sup>20)</sup> 朴壽悅本家 「苗代川由來記」에 의하면, 5~6년 간 토착일본인들은 조선인을 깔보고 작업장에 갇힌을 신고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버릇없이 굴었는데<sup>21)</sup>

14) 大武進, 앞의 책, 93쪽.

15) 노성환, 「만들어진 도공의 신화」, 『일본언어문화』 12, 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285쪽.

16) 김정호, 앞의 논문, 12쪽.

17) 이상균, 「조선 도공들의 일본 이주 - 일본 薩摩도자기와 관련하여 -」, 『한국고고학연구』 6, 한국선사고고학회, 1999, 161쪽.

18) 大武進, 앞의 책, 158쪽.

19) 노성환, 앞의 논문, 286쪽.

20)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 도공이야기」, 『역사비평』 85, 역사비평사, 2008, 184~185쪽.

말이 안통하니 오히려 더욱 날뛰었고, 어쩔수 없이 조선인이 토착인들을 때리자 그 때부터 무리를 지어 보복 하니 [1603년] 12월에 나에시로가와 주변으로 이주했다고 한다.<sup>22)</sup>

세키가하라 전쟁이후 사쓰마번이 안정되어가니 번에서도 조선 도공에 대한 보호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604년 시마즈 요시히로가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 23개의 가옥을 제공하고 박평의를 쇼야(庄屋, 마을대표)에 임명한 후 직록 4석을 하사했다.<sup>23)</sup> 조선인 마을이 건설되면서 이치키에 거주하던 10여 명의 조선도공을 이주시켰으며 1624년경에는 神之川에 있는 조선도공 160명을 이주시켰다.<sup>24)</sup> 2대번주 시마즈 미츠히사(島津光久, 1616~1695)는 조선인 혈통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663과 1669년에 가고시마 高麗町の 도공들을 나에시로가와로 이주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나에시로가와와의 정착사업을 마무리했다.<sup>25)</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에시로가와와 문헌에서는 심수관家的 뿌리라고 할 수 있는 沈當吉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초기 문헌에 沈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당길은 성씨가 파악되지 않은 가고시마의 20명(1-③) 중 한 명이며 高麗町에서 생활한 뒤 1663~1669년경 나에시로가와로 이주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검토해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심수관, 심정언, 오사코 게이키치, 오사코 가즈테루 등이 沈壽官家的 當主로 활동하던 시기의 신문자료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신문기사의 등장과 심정언의 기억

심수관이 당주로 있던 1900년 황성신문에 실린 나에시로가와에 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전략) 慶長年間に 平秀吉이 朝鮮을 侵伐할 時에 薩摩國主島津義弘이 亦從役하다가 歸國할 時에 陶工十七人을 携來하여 此를 薩摩嶋의 高麗町에 居게 하였더니……① 其初에 朴平意라云는者 1 (十七人中) 最尤巧密하여 朝鮮으로서 携來한 白土及漆藥으로 原料을습아 磁器를 製造하고 此를 火計라 名하고 ② 其後平意가 同志沈當吉<sup>26)</sup>과 相謀하여 原料를 發見코저 薩摩大隅日向의 各地를 探檢하여 맞출너 石沙、漆藥石、白土、白粘土를 發見하여 磁器를 試製함이 其質이 堅硬하여 玲瓏純白은 良器를 成히니 義弘이 大喜하여 賞譽되 朝鮮의 熊川이라云는 名器보디 勝히디하여 …(중략)… 苗代 川村御用製造所에는 ③ 工人沈當吉부터 今代까지 十二世를 經하여 現今은 沈壽官이라하는 人이 主任하여 繼續하다가…(후략)”<sup>27)</sup>

21) 이미숙, 『400년 전의도자기전쟁 - 임진왜란과 조선사기장』, 명경사, 2013, 161~162쪽에 소개된 「先年朝鮮より被召渡留帳」의 내용을 보면 일본인들이 물레질하는 것이 신기하여 번번이 만들고 있는 도자기를 만져서 망가뜨렸다고 한다.

22) 大武進, 앞의 책, 158쪽.

23) 김정호, 앞의 논문, 17~18쪽.

24) 구태훈, 앞의 논문, 186쪽.

25) 방병신, 「임란 전후 피랍 도공 연구 - 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8, 120~121쪽.

26) 당자가 흐릿하여 當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후면에 나오는 글자는 명확하게 當으로 판독된다. 문맥상 같은 인물로 보이므로 當으로 서술했다.

3. “富強在於發達人材 ◎現今日本에서 磁器로 世世爲業호야 名譽가 世界에 播騰호는 玉光山沈壽官은 本來朝鮮人氏라 ① 其十二世祖沈常吉이 日本에 移住호디...(중략)...② 本是同根生으로 日本磁業은 何其興旺이며 大韓磁業은 何其衰退오 想必無他라 我韓은 人才와 工業이 前進키 極難호는 弊源이 有호니...(중략)...以是觀之컨디 人材를 發達호는 디로 富強之業이 隨以興호지로다.”<sup>27)</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우선 심수관가에서 초대라고 이야기하는 심당길로 추정되는 심상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2-②, 3-①). 초기사료에는 백토를 찾아내는 것이 박평의와 그의 아들 박정용(2대 박평의)만이 등장하는 반면, 이 시기에는 심상길이 박평의와 함께 백토를 찾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2-②). 그리고 심수관家の 보물처럼 취급되는 히바카리라고 불리는 다완을 만들고 명명한 것은 심상길이 아니고 박평의였다(2-①). 마지막으로 심수관家の 초대는 沈當吉이 아니고 沈常吉이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심씨가 어디에서 왔는지, 본관이 어디인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심정언이 당주로 있던 1918년 5월 매일신보의 기사를 보자.

4. “(전략)...일본너디에 옮겨가고져 ① 경상도김화웅천 등디에서 이십이성남녀 룽십여인을 다리고 간 것이라...(중략)...그이십이성이라흠은 안씨, 정씨, 리씨, 당씨, 변(卞)씨, 박씨, 황씨, 립씨, 차씨, 주씨, 로씨, ② 씨라씨, 연(燕)씨, 강(姜)씨, 하(何)씨, 진(陳)씨, 최씨, 김씨, 백씨, 신씨, 명씨등인디...(후략)”<sup>29)</sup>

이 기사는 나에시로가와와의 도공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인용문 3에서 보이는 심씨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또한 피랍된 22개성을 이야기하는데 실수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 심씨는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씨라씨(4-②)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이를 ‘?씨’, ‘라씨’로 간주할 수 있어 심씨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피랍된 장소인데 남월성이 아닌 경상도 김해, 웅천을 언급하고(4-①) 있다는 점이다. 심수관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공이었지만 한국에 방문하거나 고국에 돌아와 강연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심수관가가 조선에서 활약한 것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습명한 ‘13대 심수관’ 심정언 때부터이다. 심정언이 조선에 왔을 때 그를 소개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전략)...苗代川은 歷史上 朝鮮과 因緣깊은곳으로 巨今 三百二十餘年前 文祿役時代に ① 島津義弘公이 金海等地에서 朝鮮人陶工等 廿二姓男女六十餘名을 다리고 건너간 것...(중략)...現今 그들의 姓으로는 최초의 卅二姓 중 『羅, 燕, 安』 三氏는 一代로 斷絶되고 『黃, 張』 兩氏는 最初 移民後 十數年 뒤에 陶工指南으로서 琉球地方에 派遣되얏고 지금은 ② 『朴, 李, 沈, 陳, 河, 白, 朱, 鄭, 丁, 林, 車, 卞, 申, 金, 姜, 盧, 崔』 等 17姓으로서...(후략)”<sup>30)</sup>

27) 皇城新聞, 1900.04.04. 1면(<https://nl.go.kr/newspaper/searchEla.do> 검색일 : 2020.10.02.), 본래 인터넷 아카이브에 저장된 신문자료는 검색 주소와 검색시간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인터넷 링크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간략하게 정리해달라는 심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searchEla.do>)에서 검색한 자료는 “신문아카이브”로 네이버 뉴스라이벌리(<https://newslibrary.naver.com/>)에서 검색한 자료는 “뉴스라이벌리”로 동아닷컴(<https://www.donga.com>)에서 검색한 자료는 “동아닷컴”으로만 표기한다.

28) 皇城新聞, 1900.04.10. 2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2.)

29) 매일신보, 1918.05.01. 3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2.)

위의 기사는 심정언씨가 당주로 있을 때 보도된 것이지만 거의 10년 전 기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인 용문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도공들이 김해 등에서 납치되었다는 점(5-①)만 기술되어 있고, 심씨의 본관이 라든지 남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로인들의 성씨가 조금 다른데 何씨가 河로 바뀐 것, 그리고 누락된 沈씨가 삽입되었다는 점이다(5-②). 그런데 같은 날 朝鮮新聞에 기재된 심정언에 대한 기사는 위와 약간 차이가 있다.

6. “(전략)…苗代川部落은 三百二十餘年前 文祿の 役때 ① 島津義弘公이 朝鮮南原加德島等の 戰圖에서 熊川, 金海등에 있는 陶工 등 二十二姓男女 六十餘人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후략)”<sup>31)</sup>

위의 기사의 전문을 보면, 매일신보보다 훨씬 양이 적고 기사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도공의 피랍과 관련된 전투가 남원, 가덕도 전투라는 것(6-①)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도공의 피랍장소를 웅천과 김해라고 명시한 점은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같은 날 동아일보에도 심수관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매일신보와 조선신문의 기사보다 상세하다. 이 기사에도 역시 “島津義弘이 전라남도 남원과 가덕도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웅천 김해의 도공 이십이성의 남녀 육십여인을 데리고 건너간”<sup>32)</sup>이라고 되어 있다. 즉 전투는 남원과 가덕도에서 했지만 도공은 경상도 웅천, 김해의 도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심씨의 선조가 청송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 이후 1928년 4월 7일에 심정언씨는 대구를 방문해 인근 유적지와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을 관람했지만 고향 청송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신문에 심수관심정언이 鹿兒島縣會議員으로 기재되어있다는 점이다.<sup>33)</sup> 같은 해 8월 17일 심정언은 영친왕을 알현했는데 그 기사에 심씨의 선조가 경상북도 청송출신이라고 언급되어 있다.<sup>34)</sup> 아마도 심수관가가 청송심씨라고 언급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처음인 것 같다. 그 뒤에도 심정언에 관한 기사가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의 과거에 대해 조명하기보다 그의 강연일정을 알려주는 정도의 정보가 있을 뿐이다. 모든 강연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1932년 경성에서 한 강연의 내용이 『조선사회사업』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연에서 심정언은 자신 혹은 자신의 선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인용문 5번과 6번에서 언급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남원과 가덕도에서 전투를 벌인 시마즈 요시히로가 웅천, 김해 등지에서 자신들을 피랍했다는 점, 피랍된 22성 중에 현재 심씨를 포함해 17성이 남았다는 점 등이다. 이 글에서도 역시 자신이 청송 심씨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글의 후반부에 심상길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이다.

30) 매일신보, 1928.03.15. 2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3.)

31) “苗代川部落は 三百二十餘年前文祿の役の際 島津義弘公が 朝鮮南原, 加德島等の戦ひにて 熊川, 金海等において 陶工等 二十二姓男女 六十餘人を連れ歸りたる” 조선신문, 1928.03.15. 5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3.)

32) 동아일보, 1928.03.15. 5면([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28\\_03\\_15\\_v0002\\_0430](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28_03_15_v0002_0430) 검색일 : 2020.10.03.)

33) 조선신문, 1928.04.07. 4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3.)

34) 조선신문, 1928.08.17. 2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3.)

7. “(전략)…사쓰미窯의 연혁은 ① 요시히로씨가 응천, 김해의 陶土와 釉藥을 가지고 귀국하셨던 그 원료로 燒成한 것을 히바카리(火計)라 부르고 朴氏 세이좌에몬(清右衛門)을 시켜서 慶長 18년에 領國 사쓰미에서 날마다 그 원료를 찾게 했는데 ② 세이좌에몬의 同志 沈常吉과 함께 고심하여 탐색한 결과 양호한 陶土를 얻고 그것으로써 처음으로 조우사(帖佐: 지역이름)에서 燒成시키니 ③ 熊川 이상의 제 품을 만들게 되었다…(후략)”<sup>35)</sup>

인용문 7번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백자만드는 흙과 유약을 시마즈 요시히로가 챙겼고 그것으로 만든 “히바카리”다완은 요시히로가 작명했다는 점이다(7-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다시 언급하겠다. 둘째로 삼당길의 이름을 심정언은 심상길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용문 3이 신문자료이기 때문에 그 뺨이 비슷한 이름인 常으로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용문 7은 심정언씨의 연설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심수관가 초대 이름 잘못 언급할 리가 없다. 이 강연이 행해진 1932년 무렵까지도 심수관가의 초대는 심당길이 아닌 심상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기억의 변화

#### 1. 오사코게이키치의 활동과 매스컴의 기억확장

14대 심수관이라 불리는 오사코 게이키치는 1965년부터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심수관가에 대한 기억이 다소 바뀐다. 가장 먼저 심수관의 활동을 알린 신문이 마산일보이다. 마산일보 1965년 11월 2일자에는 심수관에 대한 기사가 1면과 3면에 실려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심당길의 14대 후손이라고 되어있다.<sup>36)</sup> 이 때 심당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다. 오사코 게이키치의 출국기사는 경향신문 11월 27일자에 실렸다. 그 내용은 심씨가 심당길의 14대손이라는 점. 순수한 한민족의 핏줄을 유지하며 한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했다는 점. 그리고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야시다 히토시(芦田均) 수상의 비서를 지냈으며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 등이다.<sup>37)</sup> 그 후 시바료타로의 소설이 나오고 오사코 게이키치씨는 1969년 8월 21일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이 때 심수관가의 기사가 동아일보 1969년 8월 26일자에 실려있다.

8. “(전략)…심수관씨는 이조선조때 ① 전북남원에서 일본군에게 불잡혀간 도자기공 심당길씨의 14대손. 심당길씨의 후손들은 대대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중략)…옛조상들이 살아간 고국을 찾는 감각을 가누지 못하는 심수관씨는 25일 국무총리실 안에서 만세를 부르고 애국가까지 부를 정

35) 沈壽官, 「鹿兒島縣下伊集院村苗代川の沿革について」, 『朝鮮社會事業』 10: 4, 조선사회사업협회, 1932, 12~13쪽.

36) 마산일보, 1965.11.02. 1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2020.10.03.)

37) 경향신문, 1965.11.27. 7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2020.10.03.)

도였다…(중략)…자기집에는 ② **조상들이 쓰던 유품으로 차그릇과 한글로 써진 「숙향전」 그리고 망건 등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후략)”<sup>38)</sup>

이 시기가 되면 피랍된 곳이 웅천, 김해에서 남원으로 바뀌고 초대는 심당길로 확정된다(8-①). 그리고 심수관가를 대표하는 애국심의 상징 망건이 등장한다(8-②). 그러나 아직까지 청송 심씨라는 것을 홍보하지는 않는다. 이 기사 다음 날 발행된 동아일보의 「횡설수설」이라는 짧은 글에는 심수관을 이야기하며 남원성 전투를 상세히 설명하여 마치 심수관이 남원성 전투에서 끌려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sup>39)</sup>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사코 게이키치가 14대 심수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는 심수관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했다. 이러한 일은 오사코 게이키치가 4번째로 내한 했던 1975년 11월에도 발생한다. 1975년 11월 10일자 경향신문에는 14대 심수관에 대한 인터뷰 및 기사를 실었는데 당연히 초대의 이름이 심수관이라고 생각하고 “남원에서 선조 심수관이 일본으로 납치된 이래 4백년 14대나 내려오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sup>40)</sup> 시바료타로의 소설이 아직까지 국역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 심수관가의 선조가 남원에서 피랍되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 되어 간다.

시바료타로의 소설이 김소운의 번역으로 『고향을 어이 잊으리까』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영향인지 1977년에 MBC에서 시바료타로 소설과 巖國冷文의 「고려도공의 후예」를 모티브로 한 “타국”이란 이름의 드라마가 제작되어 매스컴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sup>41)</sup> 경향신문에서는 1977년 8월 26일에 한국으로 관광 온 오사코 게이키치씨를 인터뷰하여 이튿날에 심수관가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게재했다.

9. “(전략)…당시의 일본기록에 따르면 남자 37명과 여자 6명 등 43명의 도공이 미산의 옛이름인 나에서로가와로 건너 갔으며 그 가운데 ① **고향이 경북 청송인 무관 심당길씨**가 끼어있었다. 처음 심씨는 일본에서 함께 간 ② **박평의란 사람에게서 도예술을 배워** 수관도원을 열고 사쓰마 도자기를 구웠고 현재 심씨는 그의 14대손이 된다…(후략)”<sup>42)</sup>

이 시기에 인터뷰한 내용은 이전 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심당길의 고향이 청송으로 특정되고 있고, 게다가 직업도 도공이 아닌 무관이라고 하고 있다(9-①). 그리고 심정언의 말과는 달리 박평의에게서 도예술을 배웠다고 서술했다(9-②). 이 시기에 오사코 게이키치가 내한한 것은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드라마 제작현장을 둘러보기 위함도 있었던 것 같다.<sup>43)</sup> 어찌되었든 이 드라마 탓인지 『고향을 어이 잊으리까』는 9월 경 화

38) 동아일보, 1969.08.26. 5판 8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39) 동아일보, 1969.08.27. 1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40) 경향신문, 1975.11.10. 5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41) 1977년 8월 29일부터 1977년 12월 17일까지 방송된 MBC 일일연속 사극이다. 김윤경, 오지명, 이승현, 변희봉 등이 출연했다. 본 드라마는 1977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고시마 현지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한 기사는 경향신문, 1977.08.13. 5면 참조.

42) 경향신문, 1977.08.27. 7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43) 동아일보, 1977.08.29. 5면 참조.

제작이 되었다.<sup>44)</sup>

1978년이 되면 오사코 게이키치는 뿌리를 찾아 다시 내한한다. NHK에서 제작하는 새해특집방송 「심수관 고향에 돌아오다」와 「고려문화를 찾아서」에 출현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1978년 11월 24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10. “(전략)…청송 심씨문중에 보관되어오는 ① **족보에서 임진난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인 심찬의 이름을 찾아 감격했던 점을 되새긴다. 『14대조의 諱가 讚이고 兒名이 當吉인데** 그는 일본에 끌려간 후 官名을 쓰는 것이 욕스럽다고 하며 아명으로 행세했지요. ② **이 사실은 대대로 구전되어 왔는데 나도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읍니다.** 나는 우리 족보에서 14대조의 이름을 찾은 순간 흥분으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백여명의 마을 일가들도 그를 얼싸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으며 그에게 잣과 도포를 입혀가지고 선영에 참배시켰다. 이를테면 비로소 심씨문중의 일원이된 셈이다.”<sup>45)</sup>

신문기사만 보면 참으로 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전대대로 내려오던 것을 근거로 청송 심씨 대종보에서 자신의 조상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심찬은 도공이었을까? 현재 청송심씨 대종보에는 심찬의 아명이 당길이고 임진왜란 때 건신도위였는데 피랍되어 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에 정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46)</sup> 청송 심씨 족보에서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필자가 알 수가 없으나 심수관과 심정언은 심수관의 초대가 심상길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심찬을 그들의 초대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심씨 족보에 의하면 심찬은 피랍될 당시 건신도위였다고 하는데 어쩌서 심찬을 제치고 박평의가 나에시로가와 쇼야에 임명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박평의와 함께 陶土를 찾았다는 심정언의 기억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사코 게이키치는 심당길에 대한 이야기가 대대로 구전되었으며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10-②) 하는데 심수관과 심정언과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정확히 정립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후 1984년에 경향신문에서는 「도공애화」라는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한 지면 전부를 할애하는 상세한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의 내용에서 본문의 쟁점사안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공들이 피랍된 장소를 남원으로 특정했다.<sup>47)</sup> 그리고 도공들의 이동경로를 남원(피랍) → 사천전투 → 노량해전 → 가덕도 → 일본에 도착한 것처럼 표시했다. 그런데 포로를 데리고 큰 전투를 치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② 박평의와 심당길은 친한 사이였고, 둘은 조선인의 리더였다.<sup>48)</sup> 심당길에 관한 내용은 이 기사 이전에는 거의 회자된 적이 없었다. 아마 관련사료가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기사에 서술된 것은 그 당시 나에시로가와에서의 심수관의 위상 때문에 무리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 ③ 백토를 찾아낸 것은 박평의와 그의 아들 박정용이다.<sup>49)</sup> 이것 역시 사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 같다. 여기에 청송심

44) 경향신문, 1977.09.16. 5면 「동화유감」 참조.

45) 동아일보, 1978.11.24. 5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46) 청송심씨 인터넷 족보 1권 362쪽([http://www.yesjokbo.co.kr/jokboRoot/new\\_default.asp](http://www.yesjokbo.co.kr/jokboRoot/new_default.asp) 검색일 : 2020.10.03.)

47) 경향신문, 1984.02.07. 9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48) 경향신문, 1984.02.14. 9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49) 경향신문, 1984.02.21. 9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씨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심당길이 무관이었다는 이야기 박평의에게 도예술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경향신문 1987년 8월 6일자에는 나에시로가와와 도공들을 김해, 선산의 영남 도공이라고 지칭했다.<sup>50)</sup> 아마도 이 시기까지 나에시로가와와 도공들이 남원에서 끌려갔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이후 “400년만의 귀향-심수관 도예전”이 열리는 1998년까지 짧은 기사들만 보이는데 내력이 소개된 경우도 드물고, 간혹 초대 이름 심수관으로 오인하는 기사도 실리는 등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 2. 기억의 확정과 재생산 : “400년의 귀향” 이후

1998년은 정유재란 당시 나에시로가와 도공의 선조들이 피랍된 지 4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sup>51)</sup> 오사코 게이키치는 이 역사적인 해에 한국에서 도자기 특별전을 열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1998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400년의 귀향-일본 속에 꽃피운 심수관가 도예전” 열었고,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10월 19일에는 남원에서 사쓰마로 불을 가져가는 퍼포먼스를 펼쳐서<sup>52)</sup> 국민들의 관심을 극대화 시켰다. 이 해에 심수관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서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동아일보에만 60여 건에 달한다.<sup>53)</sup> 그 이전까지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동아일보보다 많았는데 이 시점부터 심수관가의 신문보도는 동아일보가 주도하게 된다.

“400년의 귀향” 전시회를 열기 전에 오사코 게이키치가 프레스센터에서 한 연설문이 『민족연구』 창간호에 실려있다. 이 연설문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피랍도공에 대한 애잔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국심을 부각하기 보다는 12대에서 13대를 거쳐 현재 14대와 앞으로의 15대까지 이어지는 심수관가의 연계를 강하게 강조하고 도공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많이 드러냈다.<sup>54)</sup> 동아일보 1998년 7월 10일자에는 일민미술관장과 오사코 게이키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다. 이 때 일민미술관장은 도자기술보다 뿌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11. “이=청송 심씨 집안은 조선시대 명신들도 많았고 양반가문으로서 손꼽힙니다.

심=심씨 종친회에 참석했을 때 집안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① **우리집안은 양반가문인데 너희는 일본에 가서 도자기를 굽느냐. 그것도 한해 두해도 아니고 4백년이나 긴 세월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②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 직업을 14대 이어온 것은 서양 같으면 작위를 받을 만 한 일일텐데요.**”<sup>55)</sup>

50) 경향신문, 1987.08.06. 9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3.)

51) 이 때 네트워크 다큐에서 「사쓰마의 불」을 제작하여 방영했다. 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짧게 보도되었는데(1998.11.07.) 오사코 게이키치를 일본도공의 시조 이삼평공의 14대 후손이라고 소개한다. 400주년 도자전이 열리기 전까지는 심수관가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다(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26.).

52) 동아일보, 1998.10.20. 19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4.)

5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1998년을 한정하여 키워드 “심수관”으로 검색하면 129건이 검색되지만 기사와 함께 검색되는 사진도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사의 숫자는 60여 건 전후라고 생각된다. 검색 가능한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등 4개로 한정되어 있다.

54) 심수관, 「한국혼을 지켜온 재일 400년-심수관가 400 년제에 즈음하여-」, 『민족연구』 1, 서울, 한국민족연구원, 1998 참조.

이 인터뷰는 비록 짧은 내용이고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청송심씨 가문에서 심수관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심수관이 도예전을 기념하여 일민미술관과 합작하여 「심수관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답사기를 기획했다. 1998년 6월 15일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2편에 보면 “1598년 음력 8월 15일, 남원성이 함락된 날은 마침 한가위였다. 남원성에 머무르던 왕자 이금광을 호위하던 심당길은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된다.”<sup>56)</sup>라고 서술하여 심수관가의 초대 남원에서 피랍된 무신으로 소개했다. 또한 4편에는 히바카리 다완을 소개하며 “불 밖에 다른 것은 다 조선 것이라는 ‘히바카리’라는 이름은 바로 조선인의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불이나 겨우 일본 것이지 어디 감히!”<sup>57)</sup>라고 서술했는데 앞서 인용문 7-②에서 설명한 것처럼 히바카리라는 이름은 시마즈 요시히로가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명품에 대한 홍보용 이름으로 해석되지 조선 도공의 자부심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400년의 한과 함께 그 의미가 와전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 앞서 설명된 불씨 봉송 퍼포먼스이다. 1998년 10월 19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 퍼포먼스에 대해 “1598년 남원성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조국의 점토와 유약을 가져갔으나 도예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을 가져가지 못해 일본의 불로 도자기를 굽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온 선조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sup>58)</sup>고 했다. 점토와 유약을 챙긴 것은 도공들이 아니고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난리 중에 납치되어가면서 유약과 흙을 챙긴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무관출신이 무엇 때문에 도자기 재료를 챙기겠는가. 그럼에도 이러한 극적인 상황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2010년에 “불만 빌린 장인정신”이라는 제목의 칼럼과 같은 형태로 재생산된다.<sup>59)</sup>

400년 기념 도예전 이후 오사코 게이키치의 인터뷰 내용에 초대 심당길에 대한 이야기나 청송 심씨에 대한 이야기, 남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다. 또한 오사코 게이키치가 2002년에 쓴 글에도 이러한 강조점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그의 마지막 인터뷰라고 보이는 동아일보 2017년 11월 18일자 기사에도 역시 13대와 14대 그리고 15대의 이야기,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도예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선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sup>60)</sup>

15대 당주로 심수관을 습명한 오사코 가즈테루는 언론에 집중 조명된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터뷰 내용 역시 많지 않다. 동아일보 2015년 10월 22일자 기사는 그 중심 내용이 오사코 가즈테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쟁점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대 심당길이 1597년 8월 남원성이 함락될 때 외곽에서 박평의를 포함한 도공들과 함께 피랍되었다. ② 청송 심씨 묘소에 참배하고 심씨 일족을 만났다. ③ 초대 심당길 일행이 일본에 끌려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흙과 유약, 기술이었다. 불만 일본 것이었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은 일본의 흙과 유약에 불만 한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④ 심당길은 도

55) 동아일보, 1998.07.10. 7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4.)

56) 동아일보, 1998.06.18. 7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4.)

57) 동아일보, 1998.06.22. 7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4.)

58) 동아일보, 1998.10.19. 19면(뉴스라이벌리, 검색일 : 2020.10.04.)

59) 동아일보, 2010.08.07.(동아닷컴, 검색일 : 2020.10.04.)

60) 동아일보, 2017.11.18.(동아닷컴, 검색일 : 2020.10.04.)

공들의 리더격이었다.<sup>61)</sup>

오사코 가즈테루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16일에 MBC에서 스페셜 다큐를 만들어 방영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초대 심당길이 남원성 전투에서 끌려간 것으로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도포를 두른 전형적인 양반모습을 하고 있는 심당길 도자기상을 보여준다.<sup>62)</sup> 그리고 ② 청송심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친척들과의 친분을 보여준다.<sup>63)</sup> ③ 1999년 1월 15일에 습명식을 거행하는데 전해주는 보물이 초대가 쓰던 400년된 망건이었다.<sup>64)</sup> 그리고 나머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이방인이지만 조국을 그리워하며 조국의 기술을 지키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초대 심당길에 대한 기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당길은 사료에 보이지 않으며 심씨가 嶋平에 도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중에 합류했거나 鹿兒島로 도향했거나 나중에 苗代川으로 합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공일수도, 도공이 아닐 수도 있다. 청송 심씨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백토를 발견한 것은 박평의 부자였다. 둘째, 심수관이 당주로 있을 때에는 초대의 이름을 심상길로 기억하고, 마을의 리더 박평의와 함께 백토를 발견했다고 기억한다.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셋째, 심정언이 당주로 있을 때에는 초대의 이름을 역시 심상길로 기억하고 있고, 그 출신지를 웅천, 김해 일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심상길이 박평의와 함께 백토를 찾았다고 기억한다. 넷째, 오사코 게이키치가 당주로 있을 때에는 초대의 이름이 심상길에서 심당길로 바뀐다. 그리고 고향이 경상도 웅천, 김해 일대에서 전북 남원으로 바뀐다. 또한 심당길이 도착한 곳은 嶋平으로 확정되고 심당길은 도공들의 리더가 되며 청송 심씨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심당길이 무관으로 바뀌었고 박평의에게 도예를 배운 것으로 기억되지만, 400주년 도예전을 전후로는 무관으로서의 심당길보다 도공으로서의 심당길이 부각된다. 다섯째, 오사코 가즈테루의 기억에는 심당길이 청송 심씨이지만 무관이 아닌 도공이면서 양반인 것처럼 서술되고 도공들의 리더 역할을 했다고 되어있다. 물론 심당길의 출신지는 남원으로 기억된다.

#### IV. 기억의 활용 : 내선일체에서 민족혼으로

##### 1. 일제 강점기 :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기억

지금까지 신문자료를 이용하여 심수관가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심수관가의 기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아보자. 그런데 왜 심수관가일까? 사실 도자기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한다면 심당길보다는 박평의나 이삼평이 더 많이 회자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심수관가가 400년

61) 동아일보, 2015.10.22.(동아닷컴, 검색일: 2020.10.04.)

62) MBC 스페셜 한일공동기획 「400년을 흘러온 도공의 혼」, 2012년 3월 16일 방영. 19분 14초.

63) 위의 다큐, 22분 13초~23분 41초.

64) 위의 다큐, 10분 17초~11분 40초.

전 피랍도공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는 심수관 개인의 명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심수관(1835~1906)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개인의 이력이 화려하다. 1873년 오스트리아 비인만국박람회에서 대호평을 받고, 많은 일본 내 박람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았다. 1901년 일본제국 녹수훈장과 공로상을 받으며 일본 최고의 도자기 장인의 반열에 오른다. 1900년 제5회 파리만국박람회에서 동상을, 1902년 하노이 동양제국박람회에서 1등상, 1903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 2등상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으로도 일본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장인이 된다.<sup>65)</sup> 또한 1875년부터 현재 심수관요의 전신인 옥광산도기제조장을 창업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기회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영웅화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수관이 생전에 조선을 방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인용문 3에 보이는 내용은 황성신문에서 인재를 잘 키워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취지의 말을 설명하기 위해 심수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3-②). 그런데 심수관의 아들 심정언은 1918년 경부터 신문에 소개되더니 1928년부터 꾸준히 식민지 조선에 온다. 1928년의 방한은 鹿兒島縣議員 자격으로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고자 조선의 지방을 순시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sup>66)</sup> 1928년 3월 15일 처음 조선에 도착하여 남대문에서 숙박한 뒤 같은 현 출신인 토사 경기도 경찰부장을 만나 조선총독부로 이동해 총독과 충감을 만난다.<sup>67)</sup> 이 후 전주와 남원 일대를 시찰하고<sup>68)</sup> 대구, 경주 등을 들리는데 청송은 방문하지 않는다.<sup>69)</sup> 그런데 1929년의 기사부터는 현의원으로 지방을 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다니면서 자신의 조상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하기 시작한다. 신문자료를 보면 1929년 11월 01일에는 봉산군청과 사리원에서 강연하고,<sup>70)</sup> 11월 5일에는 전주 시내 고사정 공회당에서 강연했으며 이튿날 경성으로 이동했다.<sup>71)</sup> 또한 1932년 4월 28일에는 남원 읍내 심상소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29일에는 군산으로 이동했다. 총독부의 부탁으로 지방 순시를 온 것이라고 했으니<sup>72)</sup> 아마도 군산에서도 강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1932년 12월 22일자 부산일보에는 심수관심정언이 마산에 시찰왔고 18일에 각 지방을 방문한다고 했다.<sup>73)</sup> 심정언이 4월에 방한하여 이 때까지 머문 것인지, 같은 해에 재차 방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932년도에 총독부의 부탁으로 여러 지방에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6년 12월 20일자 매일신보에는 심수관심정언이 총독부의 부탁으로 신천에서 강연했다고 했다.<sup>74)</sup>

그렇다면 심정언이 조선에 와서 부지런히 지방을 다니며 했었던 강연의 내용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피랍되어 나에시로가와에 정착하며 살았다는 사실, 조선의 성을 유지하며 살

65) 방병선, 앞의 논문, 67쪽.

66) 조선신문, 1928.04.07. 4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67) 매일신보, 1928.03.15. 2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68) 매일신보, 1928.03.31. 4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69) 조선신문, 1928.04.07. 4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70) 매일신보, 1929.11.01. 3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71) 매일신보, 1929.11.05. 3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72) 매일신보, 1932.05.01. 3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73) 부산일보, 1932.12.22. 7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74) 매일신보, 1936.12.20. 5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04.)

았다는 사실 정도의 이야기만이 언급되기 때문에 언뜻보면 그 아들인 오사코 게이키치가 내한 하여 한 강연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총독부가 굳이 심정언을 초대하여 지방강연을 부탁했던 것일까? 1936년 12월 20일자 기사를 자세히 보면 강연 내용이 한일합병이래 자신 및 자신의 부락은 일본인에게 하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75)</sup>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강연도 신천 강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심정언의 글 「鹿兒島縣下伊集院村苗代川の沿革について」는 1932년 글인데 글 말미에 “於京城談”이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경성에서 한 강연의 내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 심정언이 지방에서 한 강연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鹿兒島縣下伊集院村苗代川の沿革について」의 내용은 총 7부분으로 되어있다. 처음 도입부는 자신이 임진왜란에서 피랍된 도공의 후예라고 밝히면서 “내선일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12. “大正 13년(1924)이래 누누이 조선에 왔습니다만, 항상 메이지 천황이 말씀하셨던 동양평화를 위해 内鮮融和에 미력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내선의 진정한 융합**은 서로의 인정, 풍속, 습관 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내선인이 이해하게 된다면 진정한 융합이 되는 것도 통감될 것입니다.”<sup>76)</sup>

두 번째 부분 역시 내선일체를 강조한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역사적으로도 친척이라는 점과 일본인이 조선인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13. “나는 곧잘 조선에서 내지인은 조선인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역사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않은 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역사를 생각한다면 내선은 친척이고 동지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그것이 이해된다면 내선인은 더욱 친밀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77)</sup>

세 번째 부분은 나에시로가와에 정착하는 과정이고 네 번째 부분은 조선인 도공들이 번주의 관심과 배려 아래 나에시로가와에서 잘 살고 있음을 언급했다. 다섯 번째 부분은 나에시로가와 출신 사람들이 번과 일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나열하고 있고, 여섯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사쓰마 도자기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나에시로가와와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군인을 포함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밝히고 유명한 사적지를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 연설문은 명백하게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글이다. 즉 심정언이 식민지 한국에 와서 지방을 순회하면 했던 연설은 자신들의 고향이야기를 사례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심정언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어찌 되었든 심정언은 일본인이고, 교토대학을 나온 일본의 엘리트 중 하나였다. 그런 그가

75) 위와 같음.

76) 沈壽官, 「鹿兒島縣下伊集院村苗代川の沿革について」, 『朝鮮社會事業』 10: 4, 1932, 10쪽.

77) 위와 같음.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강연한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비슷한 강연이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의 혼을 지킨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예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을 뿐이다.

## 2. 소설과 박물관에 의한 기억의 고정과정

이러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사비료타로의 소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비료타로의 소설은 오사코 게이키치가 한국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출간된 것이지만 이 시기만 해도 심수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사비료타로의 소설이 비록 심수관가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서술된 것일 지라도 고증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인기작가의 역사이야기는 세간에 기억을 작가의 기억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사비료타로의 소설, 『故郷忘じがたく候』에서 앞에서 언급한 쟁점 부분을 살펴보자.

14. “가고시마의 구사족 심수관가는 한국에서 부르던 ① **성명을 세습하고 있고**, 호적명도 그렇고, 물론 지금의 14대 당주도 그 이름이다. 마을의 놀랄만한 완고함은 370년 전에 조선 남원성에서 끌려와서 사쓰마에 귀화한 이래로 에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성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치 후 다소의 예외도 있었다.”<sup>78)</sup>

사비료타로는 나에시로가와와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남원성에서 끌려왔고, 그 성씨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서술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심수관가가 오사코씨로 성을 바꾼 것은 은폐했다고 볼 수 없지만 소설의 앞부분에서 심수관가가 그 이름을 대대로 세습한다고(14-①) 언급하여 독자들에게 심수관가 역시 성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했다. 사실 이 글은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가는 사실과 사실의 조각을 잘 배치함으로써 허구를 서술하지 않으면서 허구를 상상하게 하고 있다. 그 이후 『정비록』을 언급하며 나에시로가와 도공들이 남원성에서 잡혀왔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심수관가의 고향이 남원으로 인식하도록 서술했다.

15. “적(일본군)……진군하여 남원을 에워쌌다고 조선측의 정비록에 나와있는 것은 일본 경장2년 8월 1일이다. ① **남원성에서 수비하고 있던 심수관씨나 신노인의 선조들에게도 가장 긴장된 날이었으리라…(중략)…사쓰마 나에시로가와 사람들의 선조들이 이 함락의 날에 크게 분전했다는 것은 ② **집집마다 전설로 남아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분전했는지는 지금 외서는 알 길이 없다.** ③ **심수관씨의 선조가 귀족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아마도 왕자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제 어디쯤에서 잡혔을까?”<sup>79)</sup>**

78) 司馬遼太郎, 『故郷忘じがたく候』, 東京: 文藝春秋, 1968, 8~9쪽.

79) 위의 책, 20~22쪽.

인용문 15는 심수관가의 1대가 도공출신이 아니고 남원성전투에 참여한, 왕자를 호위하는 임무를 띤 귀족(아마도 무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략한 부분에는 『징비록』에 나오는 남원성 전투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 만약 위의 인용문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당길로 추정되는 심수관가의 선조는 도공이 아니다. 더구나 왕자를 호위하는 무반이었다면 남원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15-③). 그런데 작가가 『징비록』의 상황을 삽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심수관의 선조와 伸老人 그리고 나에시로가와 도공들의 출신이 남원성을 수비하던 사람들로 묘사함으로써(15-①) 그들을 남원주민으로 상상하게 하고 남원을 고향인 것처럼 여기게 했다. 그리고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15-②) 했지만 글의 흐름을 따라오던 독자들은 그냥 이것을 고증이 잘된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약간 뒤에 자신의 추측을 덧붙인다.

16. “이건 상상이지만, 시마즈 군대가 이 전라도 문화의 한 중심이었던 남원성을 공격할 때 처음부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도자기를 만드는 공인들을 포획하는 것이다. 그 기발한 착상이 과연 시마즈의 독창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다른 규슈의 다이묘가 한 것을 흉내 낸 것일까? 아무튼 성내에 돌입하면서 도공을 찾는다는 생각을 한 것은 틀림없다.”<sup>80)</sup>

인용문 16은 시작부터 자신의 추측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 인용문 뒤로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인용문 15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공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앞서 인용한 신문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에 오사코 게이키치가 한국에 와서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기 전까지 나에시로가와 도공들이 남원에서 끌려왔다는 증거가 없었다. 더욱이 심수관이 귀족이었다는 점 혹은 왕자를 호위하던 무반이었다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내려왔다면 심정언이 순회강연할 때 혹은 영친왕을 알현했을 때 언급되지 않았을리 없다. 그런데 소설이 쓰여진 이후 1977년에 경향신문 기사에서 “고향이 청송인 무관 심당길씨”(9-①)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의 쟁점사안은 오사코 게이키치가 가고시마 시내의 구제2중학에 입학했을 때 일본 선배들에게 맞고 들어온 장면에 대한 것이다. 오사코 게이키치는 이 시기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입학 첫 날 중학교 선배들에게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 본인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친인 심정언이 이를 미리 예상하고 마중나온 것이었다.

18. “부친은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피했었는데 그 자신도 소년처럼 가고시마 시의 중학에 들어갔던 그 날, 같은 일을 당했던 것을 은연 중에 비쳤다...(중략)...1등이 되는 수밖에 없다. 싸움도 1등을 해라. 공부도 1등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본다.”<sup>81)</sup>

위의 인용문은 조선출신의 일본인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차별을 서술하고 조선의 정체성을 지키는

80) 위의 책, 22쪽.

81) 위의 책, 42~44쪽.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서술하며 그것을 심수관가는 360년을 지켜왔음을 강조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한국인 독자가 좋아하는 이 소설의 백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중에 다소 논란이 있다. 한 논문에서 오사코 게이키치가 그 때 이미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서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sup>82)</sup> 오사코 게이키치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한 학위논문에서는 이미 창씨개명을 했지만 해당 중학교 재학생들은 오사코 게이키치가 조선출신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왜곡이나 창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sup>83)</sup>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오사코 게이키치는 1926년생이다. 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대략 1940년 전후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정언은 1928년 경부터 조선을 다니며 내지에서는 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자신들을 그 증거인 것처럼 강연한다. 1936년 12월 18일에도 조선총독부의 초청으로 강연한다는 기사<sup>84)</sup>가 존재한다. 그로부터 불과 5년이 되지 않아 인용문 18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는 심정언이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강연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시바료타로의 소설이 허구라는 것이 된다. 혹은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여기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여기에서 심정언이 기억하는 친절한 혹은 평등한 일본인이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에는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본인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 내선일체의 논리가 민족혼의 수호라는 논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오사코 게이키치가 자신의 뿌리인 청송에서 조상에게 참배하는 모습이다. 이 대목에서 심수관가의 연혁을 잠깐 설명한다.

19. “그 청송이야말로 심씨 발상의 땅이라고 한다. 심씨의 선조와 조상은 청송에서 그릇을 구웠고, 언제부터인가 청송에서 나와 심가의 기구한 운명을 만든 남원 땅에 옮겨왔다고 한다.”<sup>85)</sup>

앞의 인용문 15와 위의 인용문 19는 같은 작품에 실린 것이다. 그런데 서술이 각각 다르다. 인용문 15는 작가의 추측이고 인용문 19는 오사코 게이키치에게 전해들은 말이다. 작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서술함으로써 청송 심씨에서 어떻게 도공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수면 아래로 잠재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소설 전체에 흐르는 민족혼 혹은 애국심으로 인해 이러한 의문은 부차적인 것으로 남는다.

어쨌든 이러한 모순은 그 존재만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그 중 하나가 청송에 위치한 심수관 도예전시관이다. 청송에서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건립하고 심수관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심수관이 청송심씨이기 때문이다. 그

82) 노성환, 「만들어진 도공의 신화」, 『일본언어문화』 12, 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289쪽.

83) 三谷十夏, 「朝鮮陶工の望郷と祖國觀 - 司馬遼太郎 『故郷忘れがたく候』 に関連して -」,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70~74쪽.

84) 매일신보, 1936.12.20. 5면(신문아카이브, 검색일 : 2020.10.24.)

85) 司馬遼太郎, 앞의 책, 1968, 67쪽.

런데 만약 청송심씨에서 도공이 나왔다면 그것은 인용문 15에 나오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용문 19에 보이듯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에는 선조가 도공으로 되어있다. 아마도 심수관가의 당주로서 도공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싶어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인용문 11에 잘 나와 있다. 청송심씨 가문에서는 청송심씨가 타국에서 도자기나 굽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반면(11-①) 오사코 게이키치는 자신의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11-②). 나에시로가와 조선도공의 후예에 대한 청송심씨 종친들의 시선과 심수관가의 시선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심수관도예전시관을 건립하는 청송군의 입장은 두 입장 중 하나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도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해 놓았다.

20-1. “심당길의 본관은 경북 청송으로 대학자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다. 심당길은 1603년 시마비라에서 현재의 거주지인 나에시로가와로 이주했다. 이주한 지 2년 뒤 심당길은 처음으로 나에시로가와에 도자기소를 열고 1614년 갖은 노력 끝에 박평의와 더불어 백토를 발굴해 오늘의 사쓰마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sup>86)</sup>

2. “심당길은 청송심씨 12대손으로 남원에서 무관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됐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사쓰마에서 출병하였던 시마즈 요시히로가 퇴각할 때 납치된 조선 도공 80여 명 중 한 명이었다.”<sup>87)</sup>

위의 인용문 20-1, 2는 마치 시마료타로의 소설 속의 두 기억처럼 서로 모순된 글을 적어놓았다. 청송심씨 인데 도공이라는 점(20-1)도 모순되지만, 청송심씨 무관이지만 도공 중 1명이었다고 서술한 것은(20-2) 문장 자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안내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순은 「초대 심당길의 히바카리다완」이라는 설명문구 중 마지막 문장 “히바카리다완은 조선도공의 피맺힌 조국을 향한 그리움을 상징한다.”는 구절로 인해 부차적인 문제로 바뀌어 버린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명 구절은 그 공공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에 이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나 신문기사로 인해 어느덧 정확한 기억으로 각인된다. 여기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통해 비슷한 정보<sup>88)</sup>를 읽으면, 독자들의 기억이 서로 섞이면서 만들어낸 부정확한 기억이 역사적 사실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다.

## V. 맺음말

심수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자기 명인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심수관의 이름을 습명하며 자신의 정

86) 「납치된 저선 도자기장인 초대 심당길」,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 내 설명글.

87) 「심수관가의 뿌리 청송심씨」,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 내 설명글.

88) 유흥준, 「고향난방」,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1 규슈, 창비, 2013, 265~292쪽.

체성을 지키고, 이것을 민족혼 혹은 조선의 예술혼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기억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거나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비판하거나 사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에 관한 기억이 어떻게 변화하고 활용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과정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

본고에서 신문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심수관이 당주였던 1900년의 기록에는 나에시로가와에서 이주한 성씨를 서술하지 않았고, 초대의 이름을 심상길로 서술하였으며 박평의와 심상길이 함께 백토를 찾았다고 했다.

심정언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신문기사에는 이주한 성씨에 심씨를 넣었고, 심상길과 박평의가 함께 백토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피랍된 곳은 웅천, 김해 등지였다. 히바카리는 조선 도공의 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심정언은 내선일체를 주장했다. 그는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차별 없이 대한다고 주장했고 그 증거로 나에시로가와를 들었다.

시바료타로의 소설을 포함한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에는 초대가 심상길에서 심당길로 바뀌었고, 청송심씨라고 주장했으며 왕자를 호위한 무관으로 박평의에게 도자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원래 도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히바카리를 조선의 도공의 혼이라고 표현했으며 일본인의 차별에도 조선의 혼과 애국심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공이 피랍된 곳은 남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기억의 변화 중 깊이 고찰해야하는 점 2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 같은 내용의 글이 내선일체의 논리로 쓰였다가 민족혼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같은 기억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대가 필요에 따라 기억을 조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둘째, 검증되지 않은 기억을 판각하는 위험성을 언급하고 싶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수관가의 초대가 심당길이라는 것은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이다. 그가 존경하는 아버지 심정언의 기억에는 심상길로 되어있다. 시바료타로의 소설에도 초대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서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지 않다고 하겠다. 그런데 당길이라는 이름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청송심씨는 족보에서 아명을 당길로 사용했던 심찬이라는 인물을 심수관가의 초대라고 특정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씨 가문에서 따져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에 기재되어 있는 글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은 그 글들을 누군가의 기억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심상길을 심당길이라고 바꾼 것도, 심수관가가 청송심씨라고 주장하는 것도, 자신들이 남원에서 끌려왔다고 주장한 것도 모두 오사코 게이키치의 기억이거나 혹은 그 구술을 토대로 작성한 소설에 나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청송심씨 출신 도공이라는 모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예전시관을 청송에 만든 것이 타당한 것이었을까? 또한 이러한 취지가 뉴스에서 보도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의심없이 이 기억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건립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사실처럼 기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 〈참고문헌〉

皇城新聞, 매일신보, 조선신문, 마산일보, 동아일보(1965년 이전) :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searchEla.do>)

경향신문, 동아일보(1965~1998년), 한겨레 : 네이버 뉴스라이벌리(<https://newslibrary.naver.com/>)

동아일보(1999년 이후) : 동아닷컴(<https://www.donga.com>)

청송십씨 족보([http://www.yesjokbo.co.kr/jokboRoot/new\\_default.asp](http://www.yesjokbo.co.kr/jokboRoot/new_default.asp))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1 규슈』, 창비, 2013.

이미숙, 『400년 전의도자기전쟁 - 임진왜란과 조선사기장』, 명경사, 2013.

大武進, 『薩摩苗代川新考』, 川内市, 村尾印刷, 1996.

司馬遼太郎, 『故郷忘じがたく候』, 東京: 文藝春秋, 1968.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 도공이야기」, 『역사비평』 85, 역사비평사, 2008.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5.

노성환, 「나에시로가와와 조선도공 마을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 35, 대한일어일문학회, 2007.

노성환, 「만들어진 도공의 신화」, 『일본언어문화』 12, 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방병선, 「임란 전후 피랍 도공 연구 - 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8.

심수관, 「나와시로가와(苗代川)에 살며」, 『일본연구』 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990.

심수관, 「한국혼을 지켜온 재일 400년 - 심수관이 400년제에 즈음하여 -」, 『민족연구』 1, 서울, 한국민족연구원, 1998.

심수관(지) 양은용(역), 「한일 도자기문화의 교류와 심수관」, 『한국종교』 26,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2.

윤지인, 「조선도공 심수관의 히바카리 다원을 통해 본 420년의 맥」, 『한국예다학』 3, 원광대학교 한국예다학연구소, 2016.

이동민, 「일본 문학에 재현된 조선계 도공의 고향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 - 시바료타로의 소설 「고향을 어이 잊으리까를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9.

이상균, 「조선 도공들의 일본 이주 - 일본 薩摩도자기와 관련하여 -」, 『한국고고학연구』 6, 한국선사고고학회, 1999.

정병설, 「도공 후에 심수관의 허상과 실상」,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2014.

沈壽官, 「鹿兒島縣下伊集院村苗代川の沿革について」, 『朝鮮社會事業』 10: 4, 조선사회사업협회, 1932.

沈壽官, 「日本の中の韓國文化の紹介とこれからの日韓文化交流のありかた」, 『일본학보』 35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1995.

三谷十夏, 「朝鮮陶工の望郷と祖国觀 - 司馬遼太郎『故郷忘じがたく候』に關連して -」,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 논문은 2020년 12월 9일에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A Reserch on Change and Application of Memory about Shimsoogwan Family**

Jeong, Young Goo\*

The Japanese ShimSoogwan is one of the most famous potters in Korea. In particular, he kept his Korean name and tradition for 400 years and became one of the best ceramic masters in the world. As Simsoogwan family was recognized as a symbol of national spirit or patriotism, the Simsoogwan Pottery Pavilion was established in Namwon and Cheongsong.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in academia because the story about the Simsoogwan family is not a historical fact. However,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 makes it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the authenticity. Rather than jumping into this controversy, I analyzed the memories of the Shimsoogwan family through historical newspaper materials and looked at the changes in their memories. Through this, I looked at how the Shimsoogwan family started and how its roots were made. It also shed light on the aspect that the memory of Shimsoogwan family was used as a logic of 'Korea and Japan are One policy(內鮮一體)' in Japanese colonial era and again as a symbol of national spirit in Korea. And finally, I looked at the process of memory fixing due to the contents of the novel and recalled the publicity and danger that the descriptions recorded in the public exhibition hall had.

**[Key Words]** Shimsoogwan, Simsoogwan Pottery Pavilion, memory conversion, Korean potter, Naeshirokawa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ong National University